

## 아버지의 죄

박세준

우리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진실’에는 온갖 종류의 사진이 있다. 빨간색 조명이 달린 이 작은 크기의 방에는 가구라고 해봐야 책상 하나와 캐비닛 두 개뿐이다. 책상 위에는 사진 관련된 도구가 어수선하게 놓여있고 캐비닛은 오래된 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찾고 있었다. 마치 편집중에 걸린 사람처럼 내가 셔터를 누른 사진들을 잘 정리해 봤지만, 정작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곧 있을 그 사람의 하직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불효자의 표상이 머리를 스친다. 그것도 나는 부정하길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보를 보았다면 사진이나 생사 따위는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버지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상흔은 박힌 총알을 빼내도 그 자리에 눌러붙어 탄의 파편과 함께 끊임없이 생을 위협하는 총상과 같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은 이탈리아를 꺾고 4강에 올랐지만 아쉽게 독일에 패배하고 말았다. 시청 앞 광장의 열기가 식어가고 가을날의 바람이 불던 오늘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심히 놀랐다. 아직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의외였기 때문이다.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자 통쾌함인지 연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셨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분다고 하네요.” 나는 얇은 외투를 건네며 말했다.

받은 주소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있는 곳은 우리 집과 꽤 가까웠다. 병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비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무렵 어머니와 나는 중환자실 앞에 있었다. 그제야 멈칫하며 내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간호사는 환자가 혼수상태라고 말했지만, 혹시 지금쯤 일어나있으면 뭐라고 표정을 지을까 울기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다. 찰나의 망설임이 무색하게도 아버지는 의식 없이 고이 누워있었다. 다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에는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이 구석 자리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었다. 많이 늙었다. 팔다리에 잔상처가 눈에

떡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 영정사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만큼 아버지는 관에 누워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야위었고 링거를 맞는 모습이 팔에 생명줄을 아주 약하게 걸어 놓은 듯이 보였다. 주차장을 나오며 병원과 연결된 장례식장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찾아보니 캐비닛과 책상 구석 사이에 끼어 있는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거의 포장지처럼 싸여있어 걸레로 떼어냈다. 딱히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적당히 처리해서 액자에 넣고 마치 영정사진처럼 검은 천으로 두 줄을 걸었다. 내 아버지의 사진을 찾는 일은 단지 액자라는 관에 맞는 시신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정면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튀어나올 듯한 눈매가 날카롭게 보였다. 하지만 두 개의 검은 창살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심했다.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불효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뿌렸던 죄값을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 집을 완전히 떠난 날을 회상했다. 그렇게 집을 나가놓고 겨우 이렇게 끝이냐고 쏘아붙였다. 대답이 없다. 검은 창살은 소리마저 막아 주나 보다. 얼굴에 드문드문 나와 닮은 모습이 보여 나도 모르게 액자 채로 내팽개쳤다.

얼마 뒤 아버지의 장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지나면 빈소를 닫았다. 얼마 없는 친척들을 빼고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건 아버지가 살던 쪽방과 남겨진 짐들, 병원비와 장례비 고지서였다. 특이한 것은 아버지가 병원에 올 때 군번줄을 걸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지서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다. 시신을 태우고 뺏가루를 낼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 딱히 별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의무감인지 아니면 아주 조금 남아있던 가족애를 태우는지 약간 눈물이 날 듯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발인이 끝나고 피곤하셨는지 나에게 이상한 말을 몇 마디 던지고 집에 가셨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기에 장례회사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작은 크기의 사진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혼자 장례를 마무리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나는 어디로 도망가 버린 영정사진을 찾지 않았다. 또 어디 구석에서 먼지나 먹고 있겠지 생각하며 나중에 준다는 말로 대강 넘겼다. 호국원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납골당, 그리고 그들의 혼을 위로하는 큰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아버지였던 사람에게 말을 건다. “죄를 용서받기엔 당신의 죽음으로는 부족하니 속죄를 위해서라면 저기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감기에 걸린 듯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집에 와서 병원에 있던 아버지의 물품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하나가 필릭 날아서 내 앞에 놓였다. 누가 찍힌 사진인지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잡아 찢어 버릴 뻔했다. “미친 인간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불쑥 튀어나온 욕설 뒤로 마음이 심히 안정됨을 느꼈다. 이제 증오할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 내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한 여자였다. 아마 고향에서 정분이 났던 여자나 첫사랑 비슷한 것이었을 것이다. 혹시 베트남에 있을 때 현지에서 만나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진이 찍힐 당시 이십 대의 젊은 처녀였으니 지금쯤 이 사람도 한참 노인이 되었을 테다.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던가. 어느 쪽이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누구든지 기억의 시작이 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흐릿하긴 하지만 나에게도 가장 오래된 기억이 있다. 장면은 내가 고무찰흙으로 애써 만든 군인 모형이 아버지의 발에 짓눌린 것으로 시작된다. 고의든 아니든, 어렸던 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군인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썼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갓 태어난 망아지 마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동안이나 몽개진 군인과 울상을 짓고 있는 나를 번갈아서 바라보았다. 차라리 어디서 아버지에게 그러냐고 화를 내었으면 나으련만 아무 감정이 없는 얼굴로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 괴기스러웠다. 지금까지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얼굴에 마취 주사를 맞은 모습이면 조금이나마 비슷하려나. 한참 동안 아버지는 그 군인 모형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품속에서 꺼내 보더니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었다. 방금 아버지의 유품들에서 나온 그 여자의 사진이었다.

사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실재를 왜곡이나 과장 없이 담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것이다. 세상은 두 번째의 쪽을 추구하지만 나는 아직 실재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다. 삶에 대한 피상적 도피책. 사진을 찍으면 기억도 담긴다. 삶에서 간간이 있었던 나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인화하여 사진첩에, 아니면 더 좋았던 기억들은 액자에 담아 거실 벽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정생활을 그러한

기억들로 덧칠하고 색이 바랄 때까지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을 집 안에 ‘사진 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보관하고 있다. 좋아하는 일은 직업이 되고 다시 스트레스가 되고 또다시 실패가 되었다. 차라리 취미 삼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엔 든다. 경쟁에 치이다 보니, 사진작가가 되어 개인 전시회를 열지도 못하고 나만의 사진관을 열어 타인들의 한 줌의 감정에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은 계약적으로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의 수습된 유골을 찍어 기록에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군 유해발굴 현장도 동행해야 하므로 쉬운 작업은 아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영웅들을 기린다는 생각으로 이상과 떨어진 내 현재를 가없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나는 부업으로 국군 유전자 검사 보조 용역으로도 일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자발적인 유전자 샘플 제공과 국방부 참전 용사 유해발굴단이 최근 많은 성과를 내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알게 된 유전자 검사 검사관이 추천해줘서 얻게 된 일종의 아르바이트였다. “나는 자네처럼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좋아, 섬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해에서 샘플을 채취할 때 보조를 아주 잘해.” 검사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채용 추천서에 이름을 올려줬다. 그 사람은 별 이유도 없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듯했다.

마치 뽑아 쓰면 언젠가는 고갈되는 석유처럼 미상의 시신들도 하나하나 가족을 찾아가 결국에는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서 일자리를 잃기 전에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 심산이었다. 유해를 돈으로만 보는 나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유전자 검사실로 출근을 하니 유난히 몸이 피로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신 용사분이 오셨어. 아, 안심하라고 별 다를 거 없이 평소처럼 나를 보조 해주면 되니까 긴장하지는 말도록 해.” 검사관이 시작하기 전 나에게 말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지만, 골격이 그 위로 드러난다. 전사자는 당연하게도 이미 백골이 되어 편안하게 누워있었다. 우리는 잠시 묵념을 하고 검사관이 표본을 채취하기 전에 나는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누런빛의 뼈에 약간 묻은 흙, 그리고 다른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왜 이 한때 젊고 파릇했던 군인이 죽었는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한 발의 총알 머리에 정통” 검사관은 슬쩍 보더니 말했다. 마치 일부러 총구를 미간에 대고 쏜 것처럼 동그란 원이 두개골에 그려져 있다. 나는 약간 이상했다고 생각했다. 왜 삶을 포기한 듯 총알에 머리를 내줬을까? 총구의 한기가 내 이마에 전해지는 듯하다. 아니 뜨거웠을지도 모른다. 베트남의 기후가 더워서, 혹은 이미 여러 발 쏜 총은 총열이 뜨겁기 때문에. 이젠 타들어 가는 느낌이 이마에서 전해진다. 주로 검사관이 표본을 채취하고 나는 장비를 건네주거나 분류작업을 한다. 뒤이어 갈비뼈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군번줄을 발견했다. 아마 전사하기 전에 군번줄을 구부려서 삼킨 것 같다고 검사관은 추정했다. “이미 자기가 죽을 걸 예견하고 있던 건가 이상하네.” 말이 이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이 섬뜩하면서 동시에 경건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일상의 한 부분처럼 익숙하기만 했다.

그날의 일급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지쳐 그냥 다음에 달라고 부탁하려던 찰나 검사관이 흰 봉투와 서류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좀 오래 걸렸군. 여기 오늘 일급일세. 수고했네. 군번을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었더라고.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유골을 수습할 때 서류를 보고 누굴 찾았는지 알지 못하면 밤에 잠을 못 잤어. 웬지 모르게 섭섭한 느낌이 들더군. 자네도 혹시 그럴 수 있으니 일단 보게나.” 본인의 습관을 왜 강요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이나 받고 집에 가고 싶었으나 예의상 서류를 훑어보는 척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늘 내가 검사관을 도와 찾은 군인의 이름과 신상명세에 내 아버지의 것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나를 보고 “미안하네. 괜히 더 찝찝해진 건가?”라고 검사관이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다. 같이 주머니에 있던 병원비와 장례비 고지서가 사뿐히 바닥에 떨어졌다. 바스락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누구죠?” 나와 검사관은 눈을 맞춘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장기화 되던 때에 파병되었다. 내가 태어나고 기어 다닐 때쯤 배를 타고 갔으니 나는 사실상 모르는 일이었지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머니는 내 친부가 떠나던 날의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다. 당시 아버지는 군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나오더니 몇 주 뒤에 베트남으로 파병을 나간다고 말했다. 당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줄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

들 하나 두고 어딜 가서 죽으려 하나'면서 군복이 찢어지도록 잡고 늘어졌다고 한다. 베트남으로 가는 배가 출항하던 날 어머니는 나를 안고 초록색 옷을 입은 국군들 속 아버지를 찾으려고 몇 시간을 헤맸다. 배가 경적을 울리며 육지를 막 떠난 뒤에야 겨우 아버지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버지는 부두에 자기 아내가 나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갑판 위에서 담배만 연신 피웠다고 한다. 수개월이 지나 잘 오고 가던 편지의 왕래가 뜸 해 질 무렵 예고하나 없이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 돌아왔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보통 귀국한 병사들은 월남에서 미제품들을 가져와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팔아 그 이득으로 가게를 일으키고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당시에는 미제품이 귀해 베트남에서 미군에게 헐값에 산 미제품이 한국에서는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귀향군인들이 오는 부두에는 군인보다 장사꾼이 많았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목돈은커녕 파병 수당조차 제대로 건네주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연신 이상한 말을 내뱉고 마치 녀이 나간 사람처럼 벽이나 하늘이나 천장의 파리 같은 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주를 송장처럼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술을 매일같이 마셨다. 술을 달고 살았던 아버지는 마치 하나의 물건이 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벽에 있는 얼룩들을 응시하고만 있었다.

차라리 나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다면 반항이라도 하거나 집에서 도망이라도 치겠건만 그러지 않았다. 정작 집을 나간 사람은 아버지였다. 가방에 무언가를 가득 채기더니 사진 속 여자를 찾으러 간다고 그 여자의 사진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얼마 지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술을 먹고 시체 같은 모습으로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들고 여자를 찾기에 반복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흑백사진처럼 내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이후 삶이라는 파도는 특히 어머니에게 더 고되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홀몸으로 나를 키웠으나 당신의 몸은 챙기지 못했다. 내가 어른이 될 때쯤 생긴 어머니의 만성 기침은 그 치료방법을 모른 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작았고 항상 가난이 노이즈처럼 끼어 있었다. 학창시절 달동네를 전전하던 집 사정 때문에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군대에 다녀와서는 바로 사진 관련해서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집안 사정은 점차 나아졌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마치 심령사진처럼 ‘화목의 부재’라는 기괴한 모습으로 인화되었다. 그 여과 때문인가 친구든 연인이든 어떤 지인이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에 뒀던 적은 없다. 전혀 본 적 없는 풍경의 이질적인 합성사진처럼, 어떤 인간관계든, 누구 와든 깊이 친해지는 모습은 나에게 어색하기만 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죄는 저격총에서 나온 총알처럼 총성 소리보다 빠르게 나를 죽이고 있었다.

회상을 멈춘 것은 검사관이 나에게 서류를 몇 개 가져와 내밀었을 때쯤이다. “자네 아버지와 이 사람은 같은 부대에 같은 소대였구먼. 이 사람의 이름은 ‘문춘식’ 씨야.” 검사관은 두 개의 파일 좌우로 번갈아 보며 말했다. “심지어 같은 분대였어. 그런데 서로의 군번줄을 바꿔 가지고 있던 이유는 모르겠군.” 정말 신기하다는 듯 성대 울리는 소리를 줌 내더니 나에게 다시 말했다. “자네 일 하나 더 하지 않겠는가?” 검사관은 나와 눈을 맞췄다. “일어요?” 나는 아까 떨어트렸던 고지서들을 주머니 속으로 살짝 만지며 말했다. “그래, 요즘 수습되는 유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할 때도 좋고 홍보할 때도 쓰인다고 하더군.” 다른 곳을 잠시 보더니 다시 나를 지극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그 홍보로 마련된 자금은 다시 전사자들을 수습하는 데 쓰이고 다른 좋은 일들에도 쓰인다네. 보아하니 이것도 사연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자네 아버지 일이기도 하니까 자네가 말아서 해보는 게 어떨겠나? 잘하면 특별 수당도 나올 수 있네.” 딱히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받은 고지서 비용이 내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약간 컸기 때문이다. 그날 안방에 있는 어머니가 깨지 않게 조심스레 잠자리에 눕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더 그랬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다. 전부터 있던 감기가 심해져 이제는 목이 따가울 정도였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당최 상상이 되지 않았다. 전장에서 서로의 군번줄을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만약 베트남에서 둘 다 죽었다면 나는 타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른 사람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둘 다 못했거나. 의문을 품은 채로 나는 병원에서 받은 주소를 따라 아버지가 생전 살던 집으로 갔다. 거기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에 이끌렸기 때문이

다. 골목골목을 지나 차를 주차하고 나는 드디어 아버지 집 현관문에 도착했다. 벨을 누르고 기다리니 나온 사람은 웬 중년 여성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사진의 그 여자인가 생각하며 의심과 함께 약간의 증오를 품었다. 나를 아들이라 소개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대자 “요새 통 안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월세도 밀렸는데.” 통명스런 말투로 말했다. 난 아버지의 비보를 전하고 집주인은 아랫방 키와 말뿐인 위로를 건넸다.

아버지의 방에는 수많은 신문과 문서로 가득했다. 전부 군대 전우회와 베트남전 전사자들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었다. 벽 한쪽 면을 장식한 우리나라 전도에는 수많은 표시와 메모들로 가득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친지와 관련된 정보였다. 특히 전쟁 중 적진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것이 많았다. 그리고 몇 권의 일기장이 눈에 띄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학창시절과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태어난 후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의 생애가 적혀있었다. 일기는 의외로 평범했고 만약 이것만 본다면 글쓴이가 따듯하고 착한 사람이겠다는 추측이 들 정도로 온화한 분위기의 글이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일기인가 싶어 겉면을 살펴봤지만, 틀림없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정자로 쓰여 있었다.

전쟁 통에도 일기를 가져가서 꾸역꾸역 썼는지 일기장에는 정체 모를 얼룩 같은 것들도 있었으며 어느 부분은 불에 그을려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버지가 포로수용소에 갇히는 대목부터 일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포로가 된 기간은 일기를 못 썼겠지만 한창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일기를 쓰던 양반이 전쟁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왜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아버지는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나는 의문을 품으며 생각하던 중 일기 후반부에 중구난방으로 쓰여 있는 수많은 주소를 발견했다. 사진 속 여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아버지와 문춘식 씨의 군번줄이 뒤바뀐 일의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차에 올랐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와 자료들을 따라서 어딘지도 모를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어떤 곳은 이미 재개발이 되어있었고 어떤 곳은 아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장소도 있었다. 포기하긴 아쉬워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주변을 쏘아 다녔지만 별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검사관의 배려로 유해발굴단 일도 잠시 멈춘 채로 며칠 동안 조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유난히 강조되어있는 한 주소를 찾았다. 나는 이번에도 허탕이면 그만둘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밖을 쏘다니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몸살 기운이 심해진 듯했다. 본능적으로 나는 이제 곧 커다란 진실에 마주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여느 시골길과 다르지 않게 주소에 나와 있는 이곳도 울퉁불퉁한 자갈들로 포장되어 있었다. 코너를 도니 시골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흙먼지가 주변을 덮고 나는 여기가 지도에 나온 곳임을 알았다. 차에서 내려 집을 기웃거리던 중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뉘신데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거요?” 외상은 없지만, 상흔으로 뒤덮인 듯한 우리 아버지와 동년배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나는 그 집 마루에 앉아 아마 내 아버지의 전우로 보이는 그 사람이 차를 내오길 기다렸다. 녹차가 나오자 나는 한 모금 가볍게 마시고 “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군번줄,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내놓았다. “이 군번줄은 저희 아버지의 전우인 문춘식 씨의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군번줄을 차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해가 수습된 문춘식 씨는 제 아버지의 군번줄을 가지고 있으셨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곳을 찾아와 보니 어르신 주소였습니다.” 그 노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검붉게 충혈되었고 눈가에서 떨어내듯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주 오래전 일 이긴 하지만 자네 아버지와 춘식이는 아주 절친이었다네. 그냥 전우 이상이었지.” 노인은 멀리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자네 아버지의 소대장이었다네.”

아버지의 부대는 북베트남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막강한 전투력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보급선과 후방의 지원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마침 암묵적인 명절 휴전을 깨고 시작된 북베트남의 1968년 구정 대공세로 인해 아버지의 부대는 고립되었다고 한다. 베트남은 게릴라식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력한 한국군이 개별 전투에는 이겨도 점점 피해가 누적되었다. 결국, 부대 지휘관은 피해를 감수하고 한국군의 본대가 있는 후방으로 전술적 퇴각을 결정했다. 그 와중 전우들을 위해 뒤에 남았던 아버지의 소대는 끝끝내 퇴각하지 못하고 베트남에게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 베트남 포로수용소는 전장보다 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장소였다고 소대장님은 회고했다. 밥 굶기기는 일수고 죽기 직전까지 고문받는 날이 아닌 날보다 많았다. 그곳

에서도 아버지와 문춘식 씨는 서로를 도우며 언젠가 풀려날 날을 기대하며 버텼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죽게 되면 서로의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준다는 뜻에서 군번줄도 바꿔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갈비뼈가 거의 보일 만큼 배를 굶던 어느 날 베트콩이 문춘식 씨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 마주 보게 했다고 소대장님은 말했다. “그리고 리볼버 한정을 주더군. 보는 눈앞에서 총알 한 발을 장전까지 해줬어. 그리고 손짓으로 러시아블렛을 하라고 시키더군.” 소대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웃긴 건 자신의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서로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라는 것이었어. 정신 나간 놈들.” 한숨을 쉬더니 다시 이어 말했다. “처음에는 문춘식이가 방아쇠를 당겼어. 그 놈들의 말을 듣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한 발은 쏘야 했거든. 다행히도 발사되진 않았지. 그런데 갑자기 춘식이가 자신을 죽이라고 자네 아버지에게 말했다네. 춘식이는 당시에 열병도 있었고 과편상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해서 자기가 어차피 곧 죽을 거라 생각했나 봐.” 나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다. 마치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총을 바라보며 문춘식 씨와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자네 아버지는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지. 그런데 보게나…….” 말을 잠시 멈추더니 침을 길게 삼켰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울면서 자네 아버지는 방아쇠를 다섯 번 당겼어. 가장 마지막에 총알이 나오더군. 이마 중간에, 미간 쪽에 깔끔하게 명중해서 즉사했지. 자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운 전우를 죽이게 된 거야.” 정적이 흘렀다. 까마귀가 울며 노을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슬며시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혹시 이 사람이 문춘식 씨의 아내인가요?” 그 여자의 사진이었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그 사진. “으…… 으응? 맞네. 이걸 자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나? 춘식이가 죽고 얼마 뒤 우리는 수용소를 탈출했어. 그 일 이후에 전선으로 복귀하고 자네 아버지는 미친 듯이 베트콩을 죽이고 다녔지. 그리고 항상 멍하니 이 사진을 보고 중얼거리고는 했어. ‘꼭 찾아야겠어. 찾아야겠어…….’ 이랬었나.”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문춘식 씨의 유골, 목숨을 내준 듯한 총알 자국과 서로의 군번줄을 가지고 있던 일의 전말. 그리고 아버지가 미친 것과 미치도록 사진 속 여자를 찾아다니던 이유. “우리 소대 모두 자네 아버지를 걱정했어. 그날 이후로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지. 시간이 꽤 흘러 한국에 돌아온 후

에 바로 춘식이의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파병 수당을 챙겨서 가버렸네. 마지막으로 내가 들은 바로는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 아버지의 집에 있던 수 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떠올랐다. “자네 아버지는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대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다친 사람처럼 보였어. 마치 총상을 입은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내 아버지의 전우에게 인사드리고 집을 나왔다. 소대장님은 나에게 수저라도 들고 가라고 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에게 멀미가 났기 때문이다. 감기가 심해져 이제는 오한이 났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를 전역하고 한창 일을 하던 무렵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몇 번 이사를 갔는데도 어떻게 찾았는지 무덤덤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순간 놀랐으나 지난날 어머니와 나의 고생이 사진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가자 이내 내 표정은 일그러졌다. 마치 들개라도 쫓아내듯 대강 손에 잡히는 빗자루를 들고 “네가 뭘데 우리 집에 찾아와!” 하면서 위협을 했다. “씩 꺼지지 못해? 나가!” 아버지가 미동도 없자 나는 빗자루를 붕붕 휘둘렀다. 그때에도 똑같이 무표정이었으나 이번에는 눈물이 조금 맺힌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내 구겨져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꿀 좋다. 어딜 기어들어 오려 그래?”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겨우 집에 도착하고 일말의 생각이 떠오른다. 호국원에 전달할 아버지의 사진을 찾지 않은 것이다. 나는 사진실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내가 손수 찍어준 전 여자친구의 독사진을 봤다. 그리고 학창시절, 군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친구들의 사진도 여럿 나왔다. 풍경 사진도 많았는데 한창 도보여행에 빠져있던 시절 한국의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자연을 촬영했었다. 그 이외에는 수많은 나 스스로의 사진들뿐이었다. 분명 잘 정리해놨다고 생각했으나 분류가 뒤죽박죽이었다. 캐비닛의 서랍을 꺼내 그대로 뒤집으니 수많은 사진이 바닥에 바스스 떨어졌다. 다른 사진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풍경 사진, 여행 사진, 나를 찍은 사진, 어머니와 친구들의 사진뿐이다. 아버지의 사진은 온데간데없었다. 눈을 여러 번 세게 깜박였다. 눈의 초점이 갑자기 나가버려 흐릿했기 때문이다. 침을 삼키니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 목에 염증이 생겼나 보다. 오한과 두통 그리고 격하게 피로가 밀려온다. 이제는 열까지 나는 듯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진 중에서 나의 아버지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나는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무시했다. 순간 차에 두고 온 지갑도 떠오르고 주차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또 아까 소대장님의 집에서부터 났던 멀미가 멈추지를 않는다. 사진을 꺼내고 또 꺼내 봐도 내 삶의 앵글에서 한 컷 한 컷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없다.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에 갇힌 아버지를 떠올랐다. 내가 액자를 내팽개친 것은 아버지의 초상 때문이 아니라 유리에 비친 나의 얼굴 때문인가. 혹시 아버지의 초상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다른 캐비닛에는 예전 사진 공모전을 준비하며 찍은 작품들도 있었다. 주제는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아픔’으로 많은 상이군인의 전쟁 후유증과 사연을 인터뷰하고 사진에 담아낸 적이 있었다.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등등 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몇몇은 몸이 정상이지만 영혼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부상자들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발에 짓밟힌 군인 모형의 모습이 플래시처럼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이상하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의 죄.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에게는 없었다. 다만 나에겐 있다.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의 죄를 찾아다녔다는 죄.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내 눈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업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상흔으로 얼룩진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급작스럽게 예전의 상흔이 아파온다. 아니면 난 스스로에게 충상을 입혔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다.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리볼버를 바라보고 있었다. 베틀콩이 단 한 발을 장전하고 드르륵 탄창을 돌려 아버지의 손에 쥐여준다. 얻어맞고 고문을 당해 상처 입은 아버지는 울며 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육분의 일의 확률, 딸각. 그리고 총을 나에게 건네 주고는 전부 발사하라는 포즈를 취한다. 딸각 딸각 딸각 딸각 딸각. 탄창을 비워내서 발사하니 아버지가 충상을 입고 쓰러지는 듯했다. 아아, 하지만 상흔은 나에게 있다. 총알이 내 몸에 박힌 것을 보니 아마 거울 속 나상의 스스로를 쏜 듯했다. 거울 속 나는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찾고 있던 것인가. 파라노이드. 애초에 아버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 스스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진다. 벽이 이상한 색으로 물든다. 아  
니 눈물이 흘러 생긴 빛 번짐 때문인지 흐려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다니. 아니다.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여기 나의  
인생이 모두 담긴 ‘사진실’에 수천 장 혹은 더 많을지도 모르는 사진 중 몇  
장, 최소한 한 장이라도 아버지의 사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잘 정리해 둔  
사진 파일을 뒤엎고 나머지 캐비닛 서랍을 뒤집어 사진들을 모두 쏟았다. 마  
치 타일처럼 바닥에 깔린다. 그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사  
진 중 내 아버지를 찾았다. 나 자신과 타인의 여러 표정을 담은 사진 더미  
중 아버지의 것은 없다. 이쪽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 가보지만 없고 저쪽에  
아버지의 상이 보여서 찾아보지만, 아니었다. 좁디좁은 나의 삶 속에서 찍은  
것은 오직 나 스스로의 사진밖에는 없었다. 사진 더미를 던지고 굽고 파고  
뒤집어 흘리고 헤집고 다녀도 당최 내 아버지의 무죄한 얼굴은 찾을 수가 없  
다. 아들의 죄였다. 감기 기운 탓인가 어지럼증 때문인가 며칠을 고생한 몸  
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무릎을 꿇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 더미를 향해  
내 눈꺼풀들이 찰칵 셔터를 내린다. 내가 찍은 수많은 얼굴 중 존재하지 않  
는 아버지의 사진이 신기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죄  
끝.